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사데에 있는 교회

성경: 계 3:1-6

I. 사데 교회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종교 개혁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실 때까지의 개신교를 예시한다 — 계 3:1.

- A. 교회가 계속 하락하면서 이세벨의 단계에 이를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었다(계 2:18, 20). 사데 교회는 두아디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 B. 사데가 출현한 것은 주님께서 두아디아의 상태를 보셨기 때문이다. ‘사데’는 헬라어로 ‘남은 것’, ‘남은 이’, 혹은 ‘회복’을 의미한다.

II.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 계 3:1.

- A. 많은 사람은 개혁된 개신교가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죽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개신교는 생명의 활력을 잃어버렸고, 명목상으로만 살아 있을 뿐이다.
- B. 개신교의 교파들의 역사 가운데 빈번히 있었던 부흥은 그들이 죽어 있다는 증거이다.
- C. 우리는 분명히 사데 교회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양육하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신언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살아 있고 활동적이기를 원한다 — 요 15:16, 마 24:45, 엡 4:12, 고전 14:1, 3-5, 12.

III.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계 3:1.

- A. 일곱 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 있도록 하며, 일곱 별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 계 1:4, 16상, 20.
- B. 죽은 개혁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과 빛나는 인도자들이 필요하다 — 계 3:1.
- C.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결코 죽은 문자로 된 지식으로 대치되실 수 없다 — 고후 3:6.
- D. 일곱 영은 일곱 별과 상응(相應)한다 — 계 3:1.
 - 1. 별은 교회의 전달자, 곧 한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전달자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이어야 한다.
 - 2.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며,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이들이다 — 단 12:3.
 - 3.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3장 1절은 별들이 그 영계 연결될 뿐 아니라 교회들에게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가 살아 있는 별이나 살아 있는 별들을 가지려면, 우리에게는 그 영과 교회가 필요하다.

IV.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계 3:2.

- A.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위 개혁된 교회들 안에는 완전하게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었다.

- B. 종교 개혁으로 시작된 것들 중 개신 교회에 의해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회복 안의 교회를 상징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계 3:7-13)가 그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 C. 종교 개혁은 교회를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하지 못했다. 종교 개혁은 세계 교회를 국교회들이 되게 했을 뿐이다 — 비교 마 16:18, 18:17, 고전 1:2, 엡 1:22-23, 계 1:11.
- D. 주님은 완성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완성을 요구하신다 — 빌 1:6.

V.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 계 3:3.

- A.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물들, 곧 그분을 추구하는 보배로운 사람들을 훔치기 위해 도둑처럼 오실 분이심을 말해 준다.
- B. 많은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비밀스럽게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 C. 오직 생명이 성숙하고 혼이 변화된 이들만이 주님께서 훔쳐 가실 만큼 보배로울 것이다 — 계 3:3.
- D. 우리는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오실 때를 위해 철저히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 눅 21:36, 마 24:42-44.

VI.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 계 3:4.

- A.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생활과 행동에서 우리의 존재를 의미한다 — 계 3:4.
- B. 어떤 사람이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특별히 죽음으로 더럽히는 것을 의미한다. 더럽혀진 옷은 죽음이 존재하거나 생명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1. 죄보다도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더 더럽힌다 — 레 11:24-25, 민 6:6-7, 9.
 2.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더러움은 죽음의 본성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3. 사데에 있는 더러움은 죄의 더러움이 아니라 죽음의 더러움이었다.
- C.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 계 3:4.
 1. ‘흰’색은 순수함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 계 7:9.
 2.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흰옷은 그 행동과 생활이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또 주님께 인정받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별히 장차 올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기 위한 자격 요건이다.
 3. 흰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죽음에 의한 얼룩이 없고, 생명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VII.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 계 3:5상.

- A. 여기서 ‘이기는 것’은 개신교의 죽은 상태를 이기는 것, 즉 죽은 개신교를 이기는 것이다.
- B.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이 입는 흰옷이시다.
 1. ‘흰옷’은 살아 있음을 가리킨다. 살아 있는 것이 흰옷을 입는 것이다.
 2.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우리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한 죽은 사람이 가장 더러운 사람이다. 또한 우리가 죽어 있다면 벌거벗은 것이다 — 계 16:15.
 3. 우리는 우리를 덮는 살아 있는 옷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이 옷은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우리 안에 일해 넣어진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옷을 갖는 유일한 길은 영으로 돌이키

고 연합된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 — 갈 4:19, 엡 3:16, 고전 6:17, 롬 8:4.

4.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약속된 대로, 흰옷을 입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이 받는 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시대에서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에 따라 오는 시대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 C.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두 벌의 옷이 필요하다 — 눅 15:22, 마 22:12.
 1. 첫 번째 옷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옷이다.
 - a.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가장 좋은 겂옷을 그에게 입히는 것이었다.
 - b. 가장 좋은 겂옷을 입은 그는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인정받았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덮개가 되셨음을 의미한다.
 - c. 그는 그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덮였다. 따라서 의롭다 함이라는 옷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2. 의롭다 함이라는 옷에 더하여,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그분을 매우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옷이 필요하다 — 마 22:12, 계 3:5상.
 - a.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인정받음’이라는 옷인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 빌 1:21, 3:9.
 - (1)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두 번째 옷을 가리킨다.
 - (2)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후는 두 가지 옷을 가졌는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스리시는 왕과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8, 13-14절).
 - b.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첫 번째 옷, 곧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제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옷을 가질 수 있다 — 빌 3:9.
 - c.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입혀지시는 반면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나오신다.
 - d.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오는 흰옷은 두 번째 옷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고 왕국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행하기 위하여, 즉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딤후 2:11-12.
- D. 우리는 모두 종교 안의 죽어 있는 상황을 이기고, 온갖 종류의 죽음을 정복하며, 흰옷을 입어야 한다 — 계 3:4-5상.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사데 교회의 상태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어 있음

주님은 사데 교회의 전달자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깨어 있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죽어 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

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계 3:1-2)라고 말씀하신다. 이 두 구절은 소위 개신교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제시한다. 개혁된 개신교는 살아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 교회가 죽어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게는 죽은 상태 안에서 살아 계신 일곱 영과 빛나는 별들이 필요하다.

죽어 가는 나머지 것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주님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죽어 가고 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신다. ‘남은 것들’이란 믿음에 의한 의롭게 됨과 공개된 성경과 같이 잃었다가 종교 개혁에 의해 회복된 것들이다. 비록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그것들은 ‘죽어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그것들을 살아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 부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실제 상황이다.

완전하게 된 일이 전혀 없음

주님은 또한 “왜냐하면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계 3:2)라고 말씀하셨다. 종교 개혁에서 시작된 어떤 것도 완전하게 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완성을 위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필요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른바 개신교 안에는 완전한 일들이 전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그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내적인 시야를 가졌다면, 마르틴 루터에 의해 회복된 믿음에 의한 의롭게 됨이 다소 앞은 것임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루터는 의롭게 됨을 거의 생명의 방식으로 다루지 않았고, 주로 교리적이고 피상적으로만 다루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증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하지만, 그는 완전하지 않았다. 그의 손 아래서 행해진 어떤 일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루터 당시에 회복된 것들은 죽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죽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개신교의 교회들이 빈번히 부흥회를 갖는다.

다섯 번째 교회에 관한 중점은 그 교회가 죽어 있고 또 죽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교회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을 때 꽤 살아 있었음을 간증할 수 있다. 그러나 분파적인 교회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는 냉장고 안으로 넣어졌고, 몇 개월 후 차갑게 식어져서 죽었다. 개혁 교회들은 죽어 있는 상태이다. 나는 이른바 개신교 안에서 자랐으므로, 그곳에 생명이 결코 없음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 교회는 죽음으로 가득하다.

이기는 이들 — 사데에 있는 소수의 이름들

그들의 옷을 죽음으로 더럽히지 않았음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사데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옷’은 우리의 행함과 생활의 어떠함을 상징한다.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특히 죽은 것으로 얼룩지게 하는 것을 뜻한다.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보다 더 더럽히는 것이다(레 11:24-25, 민 6:6, 7, 9). 이 구절에서 더러움은 죽음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사데의 더러움은 죄의 더러움이 아니라 죽음의 더러움이었다. 죽음은 죄보다 더 더러운 것이다. 구약에 의하면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그는 단순히 속죄제물을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레 4:27-31). 그러나 누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칠 일을 기다려야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민 19:11, 16). 이것은 죽음의 더러움이 죄의 더러움보다 더 심각한 것임을 가리킨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의식이 없다. 만일 당신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면 당신은 죄를 범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죽은 방식으로 집회에 온다면 당신은 그것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죽음의 상황은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는 유죄 판결하지만, 죽어 있음은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집회에서 시체들처럼 앉아 있고, 거기에 잘못이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한다. 나는 어떤 죽은 것에도 접근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느 날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비록 우리 모두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우리 중 아무도 밤새도록 그녀의 사체(死體) 곁에 감히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는 동안에 더럽게 되었다면, 아마 당신은 그녀를 전보다 더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녀가 죽는다면, 당신은 그녀의 사체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죽음을 미워하신다. 그러나 개혁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교파의 교회들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비단 틀렸을 뿐 아니라 죽음으로 가득하다. 설사 영안실에 있는 시체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해도, 그들은 죽음으로 가득하다. 죽음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것은 얼마나 추한지! 그것은 하나님께 악취를 풍기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

지방 교회들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을 미워해야 한다. 나는 교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다. 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왜 집회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고 여러 번 물어보았다. 흔히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실수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이 실수를 많이 할수록 더 좋습니다. 살아 있는 아이들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아이들은 전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집회 가운데 앉아 있다면 당신은 결단코 잘못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당신이 옳다 해도 그것은 죽어 있는 옳음일 따름이다. 나는 차라리 올바르게 죽어 있는 것보다 그르더라도 살아 있고 싶다. 나는 실수할지 모르지만, 내가 얼마나 생생한지 누구나 알 것이다.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가? 죽어 있는 옳음인가 아니면 살아 있는 틀림인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님

주님은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계 3:4)라고 말씀하신다. ‘흰’색은 순수함을 상징할 뿐 아니라 인정받을 수 상징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흰옷이란 죽음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주님께 인정받는 행함과 삶을 상징한다. 그것은 특히 장차 올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니기 위한 자격 조건이다.

이기는 이에게 주는 약속

만일 당신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읽는다면, 당신은 이 일곱 서신에서 매번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그 약속은 장차 올 왕국을 언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이나 영원한 운명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장차 올 왕국 안에서의 우리의 장래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일곱 서신 안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이고도 지배적인 원칙이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주님은 살아 있는 이들 곧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 흰옷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천 년 동안 계속될 그리스도의 혼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것은 그 천 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닌다는 뜻이다.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행하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개신교의 죽어 있음을 이기는 것, 즉 죽은 개신교를 이기

는 것을 뜻한다. 5절 전체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 후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이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님

먼저,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 ‘흰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에서 ‘흰옷을 입는’ 것은 천년왕국 안에서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상일 것이다. 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장차 올 시대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옷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옷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위해 가장 좋은 옷을 마련했다. 아버지가 맨 처음 행한 일은 그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히는 것이었다. 그 옷을 입음으로 탕자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는 가련한 거지였으므로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그가 그 옷을 입은 뒤에는 의롭다 함을 받고 인정되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를 의롭게 하는 덩개가 되셨음을 의미한다. 그는 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덮였다. 이와 같이 의롭다 함의 옷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는 우리로 주님께 인정받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또 하나의 옷이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 마포 옷’이 이 두 번째 옷을 나타낸다. 성경의 예표에 따르면, 시편 45편에 있는 왕후는 두 가지 옷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가 왕의 다스림에 있어서 왕과 함께 있기 위한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성숙해야 하며 또 모든 방해물과 빛나가게 하는 것들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경주를 해서 목표에 도달해야만 한다.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이 모든 방해물들을 이겨야 한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고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옷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하여 성숙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 체험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입혀졌으며, 반면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를 살아 내야만 한다. 이 옷은 보상을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언급된 흰옷은 이 두 번째 옷을 말한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옷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이며,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4장, 182-183, 185-189쪽)*

도둑처럼 오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3장 3절은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갈 것인데,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도둑처럼 오셔서 그분의 보물, 그분을 추구하는 보배로운 사람들을 훔쳐 가실 것임을 가리킨다. 도둑은 알지 못하는 때에 귀중한 물건을 훔치려고 온다. 많은 믿는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셔서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모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주님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한 신약의 계시는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와는 다르다. 우리의 타고난 생각에 따르면,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갑작스럽게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일종의 과정이다. 그분의 다시 오심은 보좌에서 시작될 것이고, 아마겟돈에서 싸우려고 내려오실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 주님은 보좌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이고, 공중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에는 성도들 대다수의 휴거, 심판대에서의

심판, 어린양의 결혼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공중에서 성취된 후에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사내아이(계 12장)와 첫 열매(14장)를 포함하는 초기 이기는 이들의 휴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의 과정의 시작 부분에서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휴거될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의 과정이 시작된다.

그리스도는 도둑처럼 비밀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다(계 3:3하, 16:15). 어떤 도둑도 언제 올지를 미리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도둑처럼 비밀스럽게 오실 때 보배로운 것들을 훔치려고 오실 것이다. 어떤 도둑도 값어치 없는 것을 훔치지는 않는다. 도둑은 값어치 있는 것만을 훔치러 온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숙함으로써 보배롭게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비밀스럽게 데려가실 것이다. 오직 생명이 성숙하고 혼이 변화된 이들만이 주님께서 훔쳐 가실 정도로 보배로울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둑이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오시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보배로운가,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오셔서 훔쳐 가실 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한다.

주님은 갑자기 도둑처럼 오셔서 땅에 있는 이기는 이들인 어떤 믿는 이들을 데려가실 것이다(마 24:43). 누구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초기 믿는 이들의 휴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비밀스러운 오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주 예수님은 매우 현명하시게도, 밭에 있는 두 형제와 맷돌질을 하는 두 자매를 예로 사용하셨다. 분명히 두 형제와 두 자매는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들 중 한 명과 자매들 중 한 명이 데려가진다. 이러한 예를 드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24:42-44)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 몇몇 사람들은 휴거될 것이다. 그분은 도둑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411장, 4194-4195쪽*)